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에 관한 연구

홍기훈*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국문초록 —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수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비교하여 향후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작업치료사로 인권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5개의 사례 이루어진 30개의 질문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는 7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을 온라인으로 배포, 수집하여 총 165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33.52 ± 14.96 점이었고 하위 영역에 따른 인권감수성 평균은 상황지각 20.44 ± 2.32 , 결과지각 19.85 ± 2.32 , 책임지각 19.14 ± 2.21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 중 노인의 행복추구권(12.72 ± 1.56)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권(11.04 ± 2.23)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중 연령, 교육정도, 근무기관과 임상경력에서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보였다.

결론 :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은 연령과 임상경력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인권관련 상황에 노출될수록 인권감수성이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상황지각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클라이언트-중심의 중재를 위한 공감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인권감수성, 작업 정의, 작업치료, 작업치료사

I. 서론

안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몇몇 철학자들은 인간의 안녕이 궁극적으로 삶의 참여에 대한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Ryff & Singer, 1998). 따라서 안녕은 작업치료사가 관심 가져야 할 개념이다. 즉 작업치료의 핵심 가정 중 하나는 작업참여가 안

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Law, Steinwender, & Leclair, 1998).

작업치료는 작업을 통해 건강과 안녕을 촉진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보건 전문직이다. 작업치료의 주요 목표는 사람들이 매일의 일상 활동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작업치료사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그들이 하고 싶은,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에게 기대되

교신저자: 홍기훈(alclstp@hanmail.net)

접수일: 2018. 11. 21. 심사일: 2018. 11. 21. 게재승인일: 2018. 12. 24.

어지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작업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작업이나 환경을 수정하기도 한다(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WFOT], 2012).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가치와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권이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2002). 인권은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속하는 일련의 권리이며(Winston, 1989), 이러한 인권에 대하여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문화와 신념에 부합하는 방식에 따라 성장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며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입장 표명을 하였다(WFOT, 2006). 이러한 인권에 대한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의 입장 표명은 작업치료 실행 영역에서 인권이라는 주제가 주목을 받는데 기여하였다(Lorenzo, 2010). 이렇듯 작업참여와 작업 정의(occupational justice)라는 개념을 통해서 작업치료사는 인권을 지지하는 전문가로 독특한 기여를 해왔으며, 작업 정의는 사회적 정의와는 다르게 개인과 집단의 요구와 특별한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인권에 기여를 하였다(Whiteford & Townsend, 2011).

인권의식은 인권과 관련된 지식과 인권의 옹호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인권 판단력, 인권 침해 상황 속의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나타내는 인권 감수성, 그리고 인권문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인권 행동의사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Kim, 2011), 한 사람이 인권옹호 행동을 하기 까지 인권감수성, 인권 판단력, 인권에 대한 동기화, 인권 옹호 행동의 네 가지 심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 첫 번째 단계가 인권감수성이다(NHRCK, 2002).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과 관련된 문제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상상해보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며 인권 옹호 행동을 유발하는 인권의식의 필수적 요소이다. 즉 한 개인의 인권감수성이란 인권상황에 대한 지각능력을 통해서 결과지각능력과 책임지각능력이 더하여 인권에 대한 감수성 수준이 결정된다(NHRCK, 2002). 인권감수성은 인권의식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이

면서 동시에 다음 세 가지 하위 요소를 가진다. 첫 번째는 상황지각능력으로 경험하는 상황을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이해능력을 뜻한다. 두 번째는 결과지각능력으로 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책임지각능력은 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지각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다.

작업치료는 전통적인 서비스 현장인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학교, 어린이집, 복지관 및 요양시설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작업치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작업치료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와 함께 클라이언트-중심의 중재접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Lee et al., 2010),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 또한 필요하다. 2008년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제6조 2항이 신설되어 정신보건 시설 종사자는 매년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서도 인권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인권 옹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Lee et al., 2016). 이러한 인권 의식과 실천에 대한 노력이 있었으나 정신보건 분야에 제한된 교육과 연구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작업치료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을 조사한 연구(Jang, Lee, & Kong, 2017) 외에 임상 현장의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 관련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인권 옹호 행동의 시작 단계인 인권감수성의 수준과 변인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여 향후 인권 교육 개발과 인권 옹호 행동의 촉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전국의 작업치료사이며, 전국의 지역을 고려하여 설문은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선행연구를 통해 작성된 설문지를 온라인 설문지로 변환하여 조사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는 자료 배포와 결과 수집의 편의성과 문항 답변 시 결측값이 발생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설문지 URL을 전송하여 배포하고 연구 대상자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기 기입식 방법으로 응답하여 연구자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으며, 총 165부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과 인권감수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종교, 근무기관, 근무분야, 경력의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인권감수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권감수성 측정도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인권감수성 척도를 사용하였다(NHRCK, 2002). 본 척도는 대학생 및 성인용으로 인권침해 사례로 논란이 될 수 있는 10개의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례별로 인권과 관련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이 문제 되는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상황지각), 그 상황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지(결과지각),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지(책임지각)를 측정하는 것이다. 각 사례를 읽고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과 인권과 관련 없는 다른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의 평정을 비교하여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의 점수가 높은 반응만 선택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각 문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 5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학 전공 교수 2인과 10년 이상 경력의 작업치료사 1인의 자문을 통해 10개의 사례 중 작업치료 임상현장에서 많이 접할 수 있고, 갈등의 상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개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사례는 각각 '노인의 행복추구권',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사생활 침해',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을 담고 있다. 도구의 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76이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인에 따른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Scheffe's test를 통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165명 중 남성은 46명(27.9%), 여성은 119명(72.1%)이었다. 연령은 20대가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0명(30.3%), 40대 7명(4.2%)이었다. 교육 정도는 일반대학 졸업이 78명(47.3%)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 졸업 60명(36.4%), 대학원 이상 27명(16.4%) 순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9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기관은 재향/요양병원이 전체의 67.3%를 차지하였고, 근무분야는 성인치료 담당이 67.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업치료 근무경력은 3년 미만이 74명(44.8%), 3~5년 41명(24.8%), 6~10년 33명(20.0%), 11년 이상 17명(10.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하위 영역 별 인권감수성 수준

연구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33.52 ± 14.96 점이었다. 하위 영역에 따른 인권감수성 평균은 상황지각에서 20.44 ± 2.32 , 결과지각에서 19.85 ± 2.32 , 책임지각에서 19.14 ± 2.21 점이었다(Table 2).

3.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수준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의 수준은 Table 3과 같다. 전체 에피소드 중 노인의 행복추구권(12.72 ± 1.56)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12.15 ± 1.98), 사생활권(12.08 ± 1.78),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11.44 ± 2.34) 순이었고,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권(11.04 ± 2.23)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에피소드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5)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46	27.9
	Female	119	72.1
Age (yr)	< 30	108	65.5
	30~39	50	30.3
	≥ 40	7	4.2
Education	College	60	36.4
	University	78	47.3
	More than masters	27	16.3
Religion	Christian	36	21.8
	Buddhist	18	10.9
	Catholics	15	9.1
	No religion	96	58.2
Organization type	General Hospital	30	18.2
	Rehabilitation/Nursing Hospital	111	67.3
	Community welfare center	4	2.3
	Child development center	11	6.7
	Other	9	5.5
Clinical field	Adult	112	67.9
	Elderly	25	15.2
	Child	25	15.2
	Other	3	1.7
Clinical experience (yr)	< 3	74	44.8
	3~5	41	24.8
	6~10	33	20.0
	≥ 11	17	10.4

Table 2. Level of Human Rights Sensitivity by Subcategories

Subcategories	M±SD	Minimum	Maximum	Range
Human Rights Sensitivity	33.52±14.96	0	70	0~75
Perception of situation	20.44±2.32	15	25	0~25
Perception of result	19.85±2.32	14	25	0~25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19.14±2.21	13	25	0~25

에서는 결과 지각이 가장 높았으며, 에피소드 2, 3, 4에서는 상황지각의 점수가, 에피소드 5에서는 책임 지각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총 7개의 변인 중 성별과 근무분야에 따른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의 경우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정에서는 각 집단 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인권감수성은 집단 간 차이가 있으며 40대가 20대 보다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에서는 전문대학 교육 이수자와 대학원 이상 교육 이수자가 일반대학 교육 이수자보

Table 3. Level of Human Rights Sensitivity by Episodes

Classification	Human rights sensitivity (0~15)	Perception of situation (0~5)	Perception of result (0~5)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0~5)
Episode 1.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of the elderly	12.72±1.56	2.53±2.22	3.46±2.07	3.32±1.93
Episode 2. Right to education in disabled	12.15±1.98	3.30±2.13	2.09±2.23	2.87±2.22
Episode 3. Privacy rights	12.08±1.78	2.44±2.35	1.93±2.28	1.67±2.19
Episode 4. Right to personal freedom in disabled	11.04±2.23	1.73±2.23	1.11±1.96	1.59±2.13
Episode 5. Privacy right in mental illness	11.44±2.34	1.67±2.23	1.86±2.23	1.95±2.19

Table 4. Differences in Human Rights Sensitivity by variables

Variables	Categories	M±SD	t/F	p	Scheffe
Gender	Male ^a	35.61±15.70	1.12	.265	N/A
	Female ^b	32.71±14.65			
Age (yr)	< 30 ^a	31.04±14.58	6.82	.001	a<c
	30~39 ^b	36.70±14.38			
	≥ 40 ^c	49.00±12.66			
Education	College ^a	36.05±13.15	5.41	.005	b<a,c
	University ^b	29.71±15.01			
	More than masters ^c	38.89±16.22			
Religion	Christian ^a	37.39±14.61	2.99	.033	a,b,c
	Buddhist ^b	32.22±13.66			
	Catholics ^c	40.93±16.27			
	No religion ^d	31.15±14.66			
Organization type	General Hospital ^a	40.67±12.87	4.32	.002	e<a
	Rehabilitation/Nursing Hospital ^b	31.68±15.18			
	Community welfare center ^c	35.50±9.04			
	Child development center ^d	40.73±13.43			
	Other ^e	22.56±10.63			
Clinical field	Adult ^a	33.28±15.71	.86	.465	a,b,c,d
	Elderly ^b	33.56±12.39			
	Child ^c	35.96±14.31			
	Other ^d	21.67±7.23			
Clinical experience (yr)	< 3 ^a	30.11±14.74	3.76	.012	a<d
	3~5 ^b	34.44±12.87			
	6~10 ^c	35.33±15.89			
	≥ 11 ^d	42.59±15.24			

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근무기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기타의 직종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보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의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다. 임상경력에 따른 인권감수성은 11년 이상 집단이 3년 미만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찰

작업치료 이론들은 작업 정의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으며 작업 정의는 인권, 평등, 모든 인간 존재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 등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정의라는 개념은 사회, 경제 분야에서 자원과 이득의 분배에 기초한 것으로 설명되어진다(Townsend & Wilcock, 2004). 그러나 정의의 개념에서 이러한 이익과 자원의 분배에 대한 불평등과 부당함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의를 이익과 자원의 분배처럼 소유의 개념이 아닌 ‘하기(doing)’의 개념 즉, 행동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Young & Allen, 2011).

특별하게도 작업치료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분야이며, 작업치료사는 그 전문성을 작업적 권리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이런 기초에 따라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은 ‘모든 사람은 작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는 인권에 대한 작업치료적 관점을 발표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작업치료 오용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작업치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서는 정신보건시설을 중심으로 인권에 기반한 작업치료 실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Lee et al., 2016). 또한 인권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권에 대한 의식고취와 작업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 [KAOT], 2017). 그럼에도 국내 작업치료사들의 인권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매우 부족하여 인권 또는 윤리와 관련된 주제는 Sagong, Lee와 Jeon(2018), Chang, Lee와 Kong(2017), Park과 Kim(2014)의 연구가 전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수준과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인권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권 옹호행위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와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2.23(5점 척도 기준)으로 사회복지과목 원격대학 성인학습자 대상 2.70,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의 일반 성인 대상 평균 2.67,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2.64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작업치료학 전공 대학생의 평균 2.02 보다는 높았다(Byun & Kim, 2016; Chang, Lee, & Kong, 2017; NHRCK, 2002; Park, 2013). 이는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에 비하여 임상현장에서 인권갈등경험이 더 많았기 때문

에 인권감수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복지과목을 수강하면서 인권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학습자나 일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 유린 보도 등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작업치료사에 비하여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Kim과 Cho(2017)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대학의 성인학습자들이 인권 과목 수강 후 인권감수성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던 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인권감수성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인권감수성의 하위요인은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책임지각, 결과지각, 상황지각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Byun & Kim, 2016; Kim, 2015; Seo, 2017)와는 차이가 있다. 상황지각은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능력이며, 책임지각은 인권과 관련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나타낸다(NHRCK, 2002). 책임지각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난 연구의 대상자들은 주거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그리고 간호대생이었다. 이러한 능력들은 주로 대상자에게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행동적인 결과에 민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Kim(2008)의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클라이언트가 가장 선호하는 작업치료사의 태도와 특성은 공감능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중심의 중재를 통해 작업치료사들은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인권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문제로 받아들이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수준의 경우 노인의 행복추구권,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 사생활권,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권 순으로 나타났다. Kim과 Yeum(2013)은 자신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각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해당 항목이 자신의 상황과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계일수록 인권감수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주거시설 종사자와 온라인 대학의 성인학습자의 경우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가 가장 높은 항목이었고 다음이 노인의 행복추구권이었으나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의 경우 본 연구와 동일하게 노인의 행복추구권,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순이었다(Byun & Kim, 2016; Chang, Lee, & Kong, 2017; Kim & Cho, 2017). 따

라서 향후 인권교육에 있어서 교육대상자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교육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연령, 교육정도, 근무기관과 임상경력에서 나타났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인권감수성의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40대가 20대 보다 유의하게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무경력에서도 근무경력이 길수록 인권감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인권문제로 갈등할 수 있는 상황에 많이 노출될수록 높은 인권감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막 교육과정을 마치고 처음 작업치료를 시작하는 새내기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3년, 4년 또는 그 이상의 대학 교육의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 교육 년 수와 인권감수성이 비례하지 않는 결과를 통해 교육의 양보다는 어떤 교육을 하는지 교육의 내용과 질에 따라서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근무하는 기관의 형태에 따라서도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기타 기관보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경우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된 5가지 에피소드 중 4가지가 직·간접적으로 의료·보건 현장과 관련된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작업치료사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작업수행의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와는 다른 교육적 접근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기간 및 자원의 한정으로 인해 비확률표집 방법인 편의 표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작업치료사 전체를 대표하는 결과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인권교육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한 점과 인권감수성을 측정하는 연구도구 중 일부의 에피소드를 추출하여 조사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권감수성을 알아보는데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작업치료사들의 인권감수성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임상현장의 작업치료사들에게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인권감수성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인권옹호 활동까지 확장하여 작

업치료가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수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비교하여 향후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점수는 평균 33.52 ± 14.96 점이었고 하위 영역에 따른 인권감수성 평균은 상황지각 20.44 ± 2.32 , 결과지각 19.85 ± 2.32 , 책임지각 19.14 ± 2.21 로 나타났다. 에피소드 중 노인의 행복추구권 (12.72 ± 1.56)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권 (11.04 ± 2.23)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중 연령, 교육정도, 근무기관과 임상경력에서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보였다.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은 연령과 임상경력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인권관련 상황에 노출될수록 인권감수성이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상황지각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클라이언트-중심의 중재를 위한 공감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인권교육과 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옹호자로서의 작업치료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17). *작업치료를 위한 장애인 권 강사 양성과정*. Retrieved from <https://www.kaot.org/start.asp>.
- Byun, S. Y., & Kim, B. S. (2016).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practitioners at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6*(1), 139-156.
- Chang, K. Y., Lee, E. J., & Kong, M. J. (2017). Study on human rights susceptibilit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5*(3), 141-152.

- Kim, J. Y. (2011).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typology of youth's human rights consciousness.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6(2), 57-83.
- Kim, M. H. (200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therapists that stroke patients prefer*. 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Dankook, Cheonan.
- Kim, S. E. (2016). Ethical values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in nursing student.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18(2), 117-128.
- Kim, Y. J., & Cho, K. J. (2017). A Study on the educational effects of a human rights course on adult learners' human rights sensitivity in an on-line university.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5(1), 27-53.
-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 (2017). *작업치료사를 위한 장애인권 사 양성과정*. Retrieved from <https://www.kaot.org/start.asp>
- Law, M., Steinwender, S., & Leclair, L. (1998) Occupation, health and well-being. study on the practice of human rights-based occupational therapy. *The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5(2), 81-91.
- Lee, D. S., Lee, S. W., Kim, S. K., Jang, Y. J., Hwang, E. S., & Lee, J. E. (2016). *A Study on the practice of human rights-based occupational therapy*. Seoul: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 Lee, H. S., Jung, M. Y., Jung, B. I., Yoo, E. Y., Park, S. H., & Kang, D. H. (2010). Survey of job characteristics and practice analysis among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8(2), 1-21.
- Lorenzo, T. (2010). The right to rehabilitation: from policy development to implementation. *South Af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0(1), 1.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 *Developing indicators of psychological scale for human rights sensitivity*. Retrieved November 2, 2018, from https://library.humanrights.go.kr/search/media/img/CAT000000006616?metsno=000000000031&fileid=M000000000031_FILE000001
- Park, S. Y., & Kim, J. K. (2014). A Study on the research ethics of occupational therapy researcher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2(1), 97-108.
- Ryff, C. D., & Singer, B.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1), 1-28.
- Sagong, B., Lee, H. Y., & Jeon, B. J. (2018). A Survey on the awareness of bioethics among the occupational therapist.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6(3), 69-78.
- Seo, J. S.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job satisfaction on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of group home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orker*. 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Baekseok, Cheonan.
- Townsend, E., & Wilcock, A. A. (2004). Occupational justice and client-centered practice: A dialogue in progress. *The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1(2), 75-87.
- Whiteford, G., & Townsend, E. (2011). Participatory occupational justice framework(POJF 2010): enabling occupational 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F. Kronenberg, N. Pollard, & D. Sakellariou (Eds.), *Occupational therapies without borders-volume 2: Towards an ecology of occupation-based practices* (pp. 65-84). Edinburgh: Churchill Livingstone Elsevier.
- Winston, M. E. (1989). Introduction: Understanding human rights. In M. E. Winston (Ed.), *The philosophy of human rights* (pp. 1-41).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WFOT] (2012). *Definition of occupational therapy*. Retrieved October 30, 2018, from <http://www.wfot.org/AboutUs/AboutOccupationalTherapy/DefinitionofOccupationalTherapy.aspx>
-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WFOT]. (2006). *Human rights CM2006*. Retrieved October 30, 2018, from <http://www.wfot.org/ResourceCentre.aspx>
- Young, I. M., & Allen, D. S. (2011).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reissue 2011 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Human Rights Sensitivity in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

Hong, Ki-Hoon*, M. Sc.,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ya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human rights sensitivity of occupational therapist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 of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for occupational therapists in the future and to emphasize their role as human rights advocates.

Methods :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occupational therapists who chosen by snowball sampling metho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5 episodes and 30 questions to measure the level of occupational therapist's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7 questions for identify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e distributed the questionnaire by on-line. 165 copies were collected and used to final data analysis.

Results : The average of occupational therapists' human rights sensitivity was 33.52 ± 14.96 . According to the subcategories, the average of perception of situation was 20.44 ± 2.32 , perception of result was 19.85 ± 2.32 , and the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was 19.14 ± 2.21 . Among 5 episodes, The highest score was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of the elderly (12.72 ± 1.56), and the lowest score was the right to personal freedom in disabled (11.04 ± 2.23).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s of the subjects' age, educational level, organization type, and the level of clinical experiences.

Conclusion : Occupational therapists' human rights sensitivity increased with age and the level of clinical experiences. And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increased as they were exposed to various human rights related circumstances. The reason of the highest score for situational awareness was that empathy for the client-centered intervention is important. This study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human rights education and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Key words : Human Rights Sensitivity, Occupational Justice, Occupation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ist